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I 사항/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섀다운 돌입에도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속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일(수) 미 증시는 미 연방 정부 섀다운 돌입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ADP 민간고용 지표 및 섀다운 여파 속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된 결과 다우, S&P500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3대 지수는 상승 마감 (다우 +0.09%, S&P500 +0.34%, 나스닥 +0.42%)

미 연방정부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관련 협상 불발 속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2018년 말 이후 약 7년 만에 결국 섀다운 상태로 돌입. 역사적으로 과거 연방정부 섀다운 기간은 평균 8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했음. 다만, 섀다운 사태가 2주 이상 장기화되거나 연방정부가 영구적으로 대규모 공무원 감원에 나설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 연휴 기간 섀다운 사태가 수습될지 여부는 주시해볼 필요

한편, 금번 섀다운 사태로 주요 경기 지표 발표가 지연되는 점도 시장 불확실성 확대 요인. 금번 섀다운으로 비농업고용(3일)을 필두로 향후 CPI(15일), 소매판매, PPI(16일) 등 주요 경기 및 물가 지표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10월 30일 FOMC를 앞둔 연준의 정책 결정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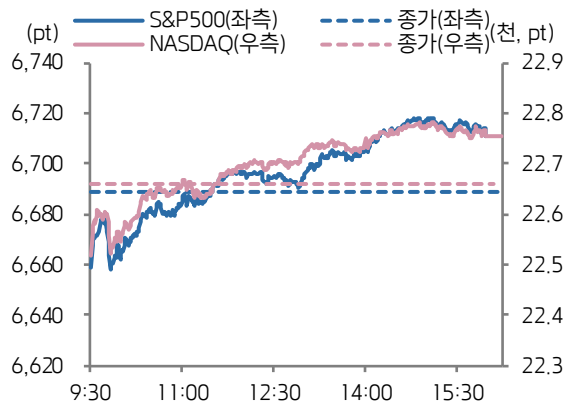
다만, 여전히 섀다운 사태는 단기에 그칠 것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효하다는 인식 속 시장 내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지속되는 흐름. 실제로, 공식 통계 공백 속 ADP 민간 고용과 같은 민간 지표에 대한 민감도 높아진 가운데 전일 발표된 9월 ADP 민간 고용은 3.2만 건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4.5만 건)를 큰 폭 하회. 8월 고용도 종전 +5.4만 건 → -0.3만 건으로 대폭 하향 조정(노동통계국의 QCEW에 따른 데이터 보정이 반영). 부진한 민간 고용 지표 발표 이후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0%선까지 하락, Fed Watch 기준 10월 금리 인하 확률 99.4%, 12월 금리 인하 확률 89.0%까지 상승하며 증시 상승을 뒷받침하는 양상

전일 국내 증시는 장기 연휴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만의 9월 수출 사상 최대치 소식에 힘입어 3분기 실적 기대감 유입 속 상승 양 지수는 상승 마감. 특히, 반도체, 조선 등 수출 호조가 확인된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결과 실적주 중심으로 증시 상승을 견인 (코스피 +0.91%, 코스닥 +0.40%)

금일 국내 증시는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유효, 마이크론(+8.8%) 폭등 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2.05%) 급등 등을 반영하며 전일에 이어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이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장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금보유 비중 확대 유인 점증하며 수급 변동성 확대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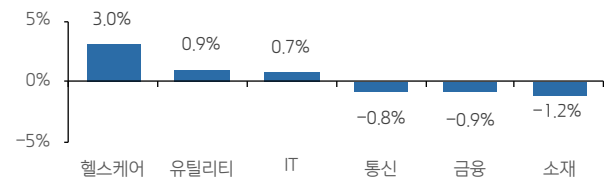
한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내 증시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 전일 발표된 9월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는 견조한 HBM 수요 및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흐름에 힘입어 전년대비 22.0% 증가한 166.1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경신. 이와 더불어 오픈 AI 대표 샘 올트만 CEO는 전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공급할 HBM용 디램 90만 장을 요청하는 등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핵심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 국내외 전방위적으로 반도체 관련 긍정적 뉴스플로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일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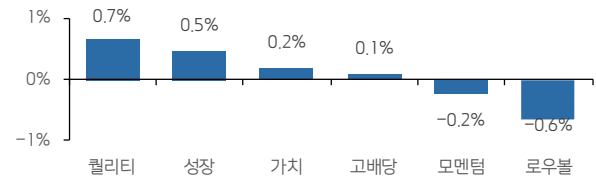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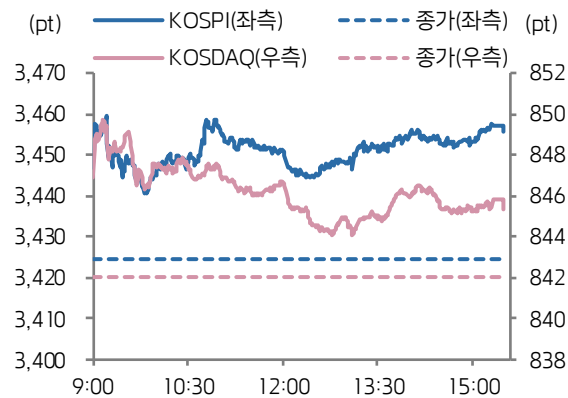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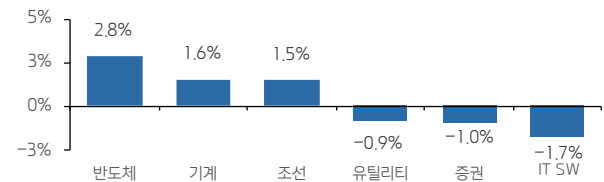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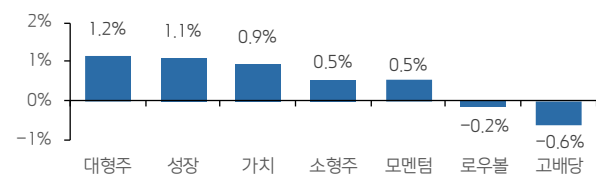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55.45	+0.32%	+2.01%	GM	61.34	+0.61%	+15.15%
마이크로소프트	519.71	+0.34%	+23.3%	일라이릴리	825.42	+8.18%	+6.92%
알파벳	244.90	+0.74%	+29.37%	월마트	101.96	-1.07%	+12.85%
메타	717.34	-2.32%	+22.52%	JP모건	310.71	-1.5%	+29.62%
아마존	220.63	+0.48%	+0.57%	엑손모빌	111.99	-0.67%	+4.11%
테슬라	459.46	+3.31%	+13.77%	세브론	154.58	-0.46%	+6.72%
엔비디아	187.24	+0.35%	+39.43%	제너럴일렉트릭	101.96	-1.1%	+12.9%
브로드컴	333.39	+1.05%	+43.8%	캐터필러	480.82	+0.77%	+32.54%
AMD	164.01	+1.37%	+35.78%	보잉	215.20	-0.29%	+21.58%
마이크론	182.15	+8.86%	+116.43%	넥스트에라	78.67	+4.2%	+9.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455.83	+0.91%	+44.02%	USD/KRW	1,403.00	-0.14%	-4.71%
코스피200	479.37	+1.13%	+50.83%	달러 지수	97.74	-0.04%	-9.91%
코스닥	845.34	+0.4%	+24.65%	EUR/USD	1.17	-0.02%	+13.31%
코스닥150	1,413.25	+0.43%	+25.09%	USD/CNH	7.13	-0.01%	-2.86%
S&P500	6,711.20	+0.34%	+14.1%	USD/JPY	147.07	-0.56%	-6.44%
NASDAQ	22,755.16	+0.42%	+17.84%	채권시장			
다우	46,441.10	+0.09%	+9.16%	가격	DTD(bp)	YTD(bp)	
VIX	16.29	+0.06%	-6.11%	국고채 3년	2.600	+1.7bp	+0.5bp
러셀2000	2,442.35	+0.24%	+9.51%	국고채 10년	2.967	+2.7bp	+9.6bp
필라. 반도체	6,500.28	+2.05%	+30.53%	미국 국채 2년	3.535	-7.4bp	-70.7bp
다우 운송	15,652.96	-0.4%	-1.53%	미국 국채 10년	4.098	-5.2bp	-47.1bp
상해종합	3,882.78	+0.52%	+15.84%	미국 국채 30년	4.710	-2.1bp	-7.2bp
항생 H	9,555.33	+1.07%	+31.08%	독일 국채 10년	2.713	+0.2bp	+34.6bp
인도 SENSEX	80,983.31	+0.89%	+3.64%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581.21	+0.93%	+14%	WTI	61.78	-0.95%	-9.81%
MSCI 전세계 지수	984.78	+0.43%	+17.05%	브렌트유	65.35	-2.49%	-12.45%
MSCI DM 지수	4,306.70	+0.43%	+16.15%	금	3,897.50	+0.63%	+40.86%
MSCI EM 지수	1,346.05	+0.47%	+25.16%	은	47.68	+2.23%	+63.05%
MSCI 한국 ETF	81.89	+2.23%	+60.92%	구리	488.25	+0.54%	+21.26%
디지털화폐				BDI	2,134.00	-3.87%	+114.04%
비트코인	117,592.26	+2.57%	+25.48%	옥수수	416.50	+0.24%	-6.14%
이더리움	4,337.04	+3.37%	+29.6%	밀	509.25	+0.25%	-14.91%
				대두	1,013.00	+1.12%	-1.19%
				커피	383.90	+2.41%	+32.6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